

##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석

김혜원 · 김명소

호서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첫째, 서구에서 제기된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구조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하고, 셋째, 둘 간의 관계가 기혼여성의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0대에서 70대까지의 471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존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6요인 모델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역시 기존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안녕감의 3요인 모두에 대해서 심리적 안녕감의 자아수용과 환경지배력 요인은 가장 높은 상관관계와 큰 설명력을 갖고 있었으나, 서구의 결과와 달리 긍정적 대인관계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기혼여성의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젊은 층의 경우 자아수용성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5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자아수용성과 함께 삶의 목적과 긍정적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기존결과와의 비교 분석과 함께 연구의 제한점 등이 논의되었다.

한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과거 몇 십 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 인간 공통의 질문에 답을

제공하기 위함일 것이다.

삶의 질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선행연구들에서 개인의 삶의 질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첫 번째 입장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이 외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고 보고, 따라서

행복은 한 개인이 바람직한 속성이나 환경적 조건(예: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신분)을 얼마큼 소유하고 있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삶의 질의 객관적 측면 혹은 "bottom-up"요소들(Diener, 1984)을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은 개인의 경제적, 환경적, 또는 사회적인 삶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강조하는 것으로 주로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이다(차경호, 1999).

두 번째 입장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 혹은 "top-down"적 요소들을 중시한다. 여기서 삶의 질은 한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삶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수준이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의 정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본다(Diener, 1984, 1994).

초기의 연구들이 삶의 질에 대해 구체적인 삶의 조건들이나 객관적인 근거들을 강조한데 반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최근의 학자들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이 삶의 질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에서 교육수준이나 나이, 성별,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적이고 객관적인 변인들이 주관적 삶의 질 변량을 약 15% 이하로만 설명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예: Diener, 1984, 1994; Ryff, 1989)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측면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현적인 요인과 내면적인 요인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둘 간의 상호관계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다.

### 주관적 안녕감 vs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입장은 다시 아래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주관적 안녕감(SWB)<sup>1)</sup>에 대

한 것으로 삶의 질에 대한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Diener와 그의 동료들은(Diener, 1984; Emmons & Diener, 1986; Diener & Diener, 1995; Myers & Diener, 1995;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과거 철학자들이 주장해온 바와 맥을 같이 하면서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선은 '행복'임을 강조한다. 즉, 이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은 개인의 삶의 질이 다시 크게 두 가지의 구성요소를 갖는다고 본다.

첫 번째는 삶의 만족도이다. 이는 삶의 상황들에 대해 개인이 내리는 인지적 평가의 부분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정도를 말한다. 두 번째는 객관적 상황들에 대해 어떠한 정서적 반응을 갖는가로서 한 개인이 느끼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포함된다. 이 둘은 상반되는 것이기보다는 서로 독립된 차원임이 최근의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Emmons & Diener, 1985).

주관적 안녕감을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하는 이러한 입장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몇 가지의 제한점과 비판점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째, 주관적 안녕감이 과연 한 개인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질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대해서이다. 비판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묻는 질문들은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장기적인 삶의 질을

선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객관적인 영역과 주관적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후자인 주관적 영역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이를 다시 첫째, 전적으로 개인적인 행복감 수준인 주관적 삶의 질과, 둘째, 심리학적 이론들에 비추어 판단될 수 있는 심리적 삶의 질로 구분한다. 관련된 용어들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큰 범주의 객관적, 주관적 삶의 질과 달리 주관적 삶의 질 내의 두 개념은 안녕감(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PWB)'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1) 삶의 질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주관적 안녕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긍정, 부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도 측정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질을 측정한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음을 보고한다(예: Schwarz & Clore, 1983, Diener, 1984에서 재인용). 또한, 최근에는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서와 판단을 질문하기도 하고, 주변인물들을 통해 보고된 삶의 질을 자기보고와 함께 고려하기도 하는 등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Diener, 1994).

두 번째는 심리적 안녕감(PWB)에 대한 것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몇몇 연구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이 갖고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Ryff등을 꼽을 수 있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이들은 한 개인이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있는 정도가 삶의 질을 대표한다는 주관적 안녕감의 기본 골격에 반기를 든다. 대신 이들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well functioning)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이들은 이제까지의 심리학 이론들에서 제기되어온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Ryff(1989)는 Maslow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fully functioning person),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 Allport의 성숙(maturity), Erickson의 기본적 삶의 경향(basic life tendencies), 그리고 Neugarten의 성격의 변화(personality changes) 등의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6개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6개 영역은 구체적으로 자아수용성(self acceptance: SA),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 PR), 자율성(autonomy: AU), 환경에 대한 지배력(environmental mastery: EM),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PL),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PG)이다. 즉,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이론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한 개인의 삶의 질, 특히 주관적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중 어느 개념이 더욱 타당한가? 보다 근본적으로, 둘은 과연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엇갈리는 입장을 보여온 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Ryff와 그의 동료들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321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Ryff(1989)는 6개 영역으로 구성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 이제까지 주되게 사용되어온 주관적 안녕감 척도들(정서균형 척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사기(morale), 통제감, 우울정도)을 통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들 간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수용성과 환경지배력은 기존의 척도들과 높은 관계를 보였지만 나머지 4개의 심리학적 변인들은 기존의 척도와는 다소 동떨어진 결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주관적 안녕감의 한 척도인 삶의 만족도와는 자아수용성, 환경지배력, 삶의 목적이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균형(affect balance: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간의 균형)에는 자아수용성과 환경지배력이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관계는 전국단위의 대단위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Ryff & Keyes, 1995).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심리학적 이론적 틀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기존의 주관적 안녕감 개념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폭 넓은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즉, 개인의 삶의 질은 응답자들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의 정도, 대인 관계에서의 만족도, 자기실현의 정도와 같이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다음으로써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삶의 질과 문화적 배경

Markus와 Kitayama(1991, 차경호, 1999에서 재인용)은 문화에 따라 자기(self)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또한 이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에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개인은 매우 다른 인지적, 정서적 경험을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동양문화권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지만 서양문화권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내적인 특성들을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Hofstede, 1991; Triandis, 1995). 이러한 주장은 몇몇 연구들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다양한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예: Diener & Diener, 1995; Kwan, Bond, & Singelis, 1997; Oishi, Diener, Lucas, & Suh, 1999)에서는 문화권의 집단주의적, 개인주의적 경향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차경호(1999)는 국내의 연구를 통해 서양문화권에서 비교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양상을 갖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남녀 대학생 3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Ryff등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영역 중 자아수용성과 환경지배력이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자율성과 개인적 성장은 삶의 만족도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적 정서와는 자아수용성과 긍정적 대인관계가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역시 자율성과 개인적 성장은 비교적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부정 정서와는 환경지배력이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수용과 자율성이 비교적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주관적 안녕감의 영역들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안녕감 영역들을 설명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삶의 만족도에 대해 자아수용성

과 환경적 지배력만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나 서양문화권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율성의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서양문화권에서의 결과(Ryff, 1989)와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도 환경지배력과 개인적 성장, 자율성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 Ryff(1989)의 결과에서 개인적 성장의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바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양문화권에서와 달리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자아수용성이나 환경지배력과 함께 자율성이나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연구들은 주관적 삶의 질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데 있어 다양한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이 서양 문화 특히 개인주의적 문화에 기초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심리적 측면들이 관련 집단주의적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다.

이러한 파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양에서 제기된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삶의 질의 구성요소를 밝히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작업으로 과연 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안녕감(주관적 안녕감)과 심리학적 개념들에 비추어 판단된 안녕감(심리적 안녕감)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위의 구조가 우리나라 기혼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특히 이들의 연령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파악이다. 이제까지의 삶의 질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결과는 상당히 비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Medley, 1980;

조명한, 차경호, 1998) 더 많은 연구결과와 축적을 필요로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 특히 국내의 연구들 중 다수는 일반적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기혼여성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 특히 삶의 질은 성별과 함께 연령변인이 함께 영향을 준다는 점(Ryff, 1989)을 고려하여 기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이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설문지를 통하여 여성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보고하게 하였다. 이들은 20대에서 70대까지인 기혼여성으로 이들이 보고한 총 471명의 응답자료를 분석되었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연령별로 20대 기혼여성이 전체의 22.5%, 30대가 23.1%, 40대가 29.3%, 50대가 20.2%, 그리고 60대 이상이 4.9%의 비율을 보였고, 이들 중 대부분은 현재 배우자와 살고 있었으며(90.7%), 이혼·별거·사별상태인 대상자는 9.3%에 해당하였다. 교육정도에 따른 응답자 수를 보면 고졸(37.6%)과 대졸(36.7%)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졸 및 초등학교 졸업자도 전체의 11.8%를 차지하였다. 거주지 별로는 서울(34.2%), 경기도(37.6%), 충청도(26.8%), 기타(1.4%) 순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월 평균 가구수입은 '100-199만원'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고(39.3%), 그 외의 층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직업과 관련되어서는 전업주부가 전체의 49.7%를 차지하고 있어 직업을 가진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가 거의 반반을 이루고 있었다.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들 중에서는 판매직(10.4%), 사무직(10.0%), 전문관리직(8.3%)의 순서로 비율이 나타났다.

### 조사도구

#### 1) 주관적 안녕감(SWB)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의 3가지 영역을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Diener 등(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에 의해 개발된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는데, 7점척도(1: 매우 반대한다 ~ 7: 매우 찬성한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측정을 위해서는 정서 빈도검사를 사용하여 지난 한 달 동안의 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7점 척도(1: 전혀 없다 ~ 7: 항상 그렇다)에 표시하게 하였다. 정적정서는 기쁨, 자부심, 애정, 만족감의 4가지 정서를 포함하고 있고 부정정서는 공포, 화냄, 슬픔, 죄책감의 4가지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 2) 심리적 안녕감(PWB)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로 측정하였다. PWBS는 6개의 차원을 포함하는 총 5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차원은 자의수용(SA), 긍정적 대인관계(PR), 자율성(AU), 환경에 대한 지배력(EM), 삶의 목적(PL), 개인적 성장(PG)이다. 각 차원에 대한 정의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부록 1). 본 연구에서는 54문항으로 구성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에 대해 2개 대학 여대생 21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계수  $\alpha$ 와 문항 제거후의  $\alpha$ , 문항 - 총점 상관계수, 요인부하량 등을 기준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각 척도당 7~8개 문항씩 45문항을 선별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문항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부록 2).

### 자료분석

먼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각 변인들의 일개념성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과 함께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Ryff와

Keyes(1995)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 8.0을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 8.12(Joreskog & Sorbom, 1993)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수 추정방식은 본 연구의 공변량 구조분석에 사용될 측정변인이 개별문항 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개별 측정변인의 정상성과 다변량 정상성을 가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비가중 최소자승법(UL: Unweighted 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부합도는 다변량 정규분포의 위반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비표준부합치(NNFI), 표준부합치(NFI), 원소간의 평균차이(RMR)를 함께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및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하위척도분석

주관적 안녕감의 3가지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67(삶의 만족도), .81(긍정적 정서), .68(부정적 정서)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척도의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76(자아수용), .72(긍정적 대인관계), .71(삶의 목적), .70(개인적 성장), .66(자율성), .60(환경지배)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6개 변인들의 일개념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6개중 4개의 변인들에서 아이겐 값이 1보다 큰 요인이 하나씩 도출되었고 요인부하량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각 이론변인을 측정하는 측정 변인들의 수렴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도출된 환경지배력 척도는 두 번째 요인이 역방향(reverse)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내용상으로는 동질적 변인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 성장척도는 내용

면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장·발전되고 있음을 느낀다는 측면과 변화의지 및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측면의 2요인으로 나누어 졌다.

그 외에도 척도간 상관관계는 중간정도의 크기를 보였는데, 자기수용과 환경지배간의 관계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개인적 성장과 자율성간의 상관관계수는 .23으로 가장 낮았다. 이와같은 상관관계는 Ryff와 Keyes(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수용과 환경지배는 매우 밀접한 변인임을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 확증적 요인분석

예비조사로부터 측정모델에 포함되는 문항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45문항들(자아수용 요인 8개, 긍정적 대인관계 요인 7개, 자율성 7개, 환경지배력 8개, 삶의 목적 8개, 개인적 성장 7개 문항)에 대하여 471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변수들이 여섯 가지 요인들을 잘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여섯 요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오직 해당 요인에만 부하되도록 했으며 잔차들 간에는 모두 상관이 없었고 모든 요인들 간에는 상호 상관이 존재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일개념성 확인을 위해 앞에서 실시한 주성분 분석시 개인적 성장에서 통계적으로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6개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모델 이외의 대안모델로 7개 요인 모델을 설정하였다. 각 측정모델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부터 얻은 다섯가지 부합도 지수들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6개요인 모델과 대안 모델(7개요인)의 전반적 부합도 지수들

측정 모델	GFI	AGFI	NNFI	NFI	RMR
6개요인 모델	.93	.92	.92	.89	.06
7개요인 모델	.90	.89	.88	.84	.08

표 1에서 보듯이 여섯 개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모델의 GFI, AGFI, NNFI는 모두 .90 이상으로써 좋은 부합도를 보이고 있고, NFI도 .89로써 좋은 측정모델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수준인 .80(Hai, Anderson, Tatham,

& Black, 1995)을 넘었다. RMR도 .06으로써 부합도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05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다섯가지 부합도 지수들로써 비교해 볼 때 이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7개요인

표 2.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델의 요인 계수 행렬

문항번호	요인1 (자아수용)	요인2 (긍정적 대인관계)	요인3 (자율성)	요인4 (환경지배)	요인5 (삶의 목적)	요인6 (개인적 성장)	SMC
c9	0.59	--	--	--	--	--	.35
c13	0.42	--	--	--	--	--	.18
c21	0.45	--	--	--	--	--	.20
c26	0.53	--	--	--	--	--	.29
c29	0.69	--	--	--	--	--	.47
c42	0.52	--	--	--	--	--	.27
c45	0.53	--	--	--	--	--	.28
c4	0.40	--	--	--	--	--	.16
c1	--	0.37	--	--	--	--	.14
c5	--	0.58	--	--	--	--	.33
c10	--	0.57	--	--	--	--	.33
c14	--	0.53	--	--	--	--	.28
c22	--	0.59	--	--	--	--	.35
c30	--	0.52	--	--	--	--	.27
c41	--	0.52	--	--	--	--	.27
c6	--	--	0.63	--	--	--	.40
c11	--	--	0.25	--	--	--	.06
c23	--	--	0.27	--	--	--	.07
c32	--	--	0.41	--	--	--	.17
c36	--	--	0.70	--	--	--	.50
c39	--	--	0.44	--	--	--	.19
c46	--	--	0.47	--	--	--	.22
c2	--	--	--	0.38	--	--	.14
c7	--	--	--	0.34	--	--	.11
c16	--	--	--	0.49	--	--	.24
c18	--	--	--	0.35	--	--	.12
c27	--	--	--	0.57	--	--	.32
c33	--	--	--	0.55	--	--	.30
c43	--	--	--	0.43	--	--	.18
c47	--	--	--	0.49	--	--	.24
c8	--	--	--	--	0.48	--	.23
c12	--	--	--	--	0.33	--	.11
c20	--	--	--	--	0.33	--	.11
c25	--	--	--	--	0.65	--	.42
c28	--	--	--	--	0.46	--	.21
c31	--	--	--	--	0.54	--	.30
c35	--	--	--	--	0.53	--	.28
c38	--	--	--	--	0.61	--	.37
c24	--	--	--	--	--	0.66	.44
c34	--	--	--	--	--	0.70	.49
c37	--	--	--	--	--	0.30	.09
c40	--	--	--	--	--	0.46	.21
c44	--	--	--	--	--	0.32	.10
c3	--	--	--	--	--	0.30	.09
c48	--	--	--	--	--	0.27	.07

표 3.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상관관계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1. 삶의 만족도									
2. 긍정적 정서	.47**								
3. 부정적 정서	-.23**	-.19**							
4. 자아수용	.54**	.46**	-.32**						
5. 긍정적 대인관계	.28**	.40**	-.26**	.50**					
6. 자율성	.15**	.16**	-.21**	.31**	.26**				
7. 환경 지배력	.37**	.37**	-.35**	.35**	.48**	.35**			
8. 삶의 목적	.35**	.40**	-.20**	.61**	.44**	.37**	.31**		
9. 개인적 성장	.14**	.29**	.05	.28**	.30**	.23**	.30**	.53**	

\* p<.05. \*\* p<.01

모델도 부합도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으나, 간결성의 법칙 및 부합도 측면을 고려하여 Ryff와 Keyes(1995)가 제안한 6요인 심리적 안녕감 모델이 지지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6개요인 모델에 대한 요인계수행렬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먼저,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 요인들간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삶의 만족도와는 자아수용(.54)과 환경지배력(.37)이 가장 강한 상관을 보인 반면, 자율성(.15)과 개인적 성장(.13)이 낮은 상관을 보였다.

긍정적 정서와는 자아수용(.46)에 이어서 긍정적 대인관계(.40), 삶의 목적(.40)과 환경적 지배력(.37)의 순으로 강한 상관을 나타냈고, 자율성(.16)과 개인적 성장(.29) 역시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정서에서는 환경지배력(-.35)과 자아수용(-.32)이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율성(-.20), 삶의 목적(-.20), 개인적 성장(.05) 요인이 비교적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두 가지 안녕감 변인들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 6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주관적 안녕감 3요인을 준거변인으로

하여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어떤 측면의 심리적 기능 혹은 정신건강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안녕감 요소인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4).

그 결과, 삶의 만족도에서는 자아수용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으며, 삶의 만족도 전체 분산의 3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와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순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분산은 28% 정도였다. 또한 환경지배력,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및 긍정적 대인관계 변인들이 부정적 정서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설명분산(18%)은 위의 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었다.

표 4.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각각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R <sup>2</sup>	β	t값
삶의 만족도	자아수용		.30	.54	12.57***
	자아수용		.22	.33	6.65***
긍정적 정서	긍정적 대인관계		.26	.19	3.82***
	개인적 성장		.28	.16	3.53***
	환경지배력		.12	-.25	-3.85***
부정적 정서	개인적 성장		.14	.19	3.87***
	자아수용		.17	-.17	-2.55*
	긍정적 대인관계		.18	-.12	-2.20*

\* p<.05, \*\* p<.01, \*\*\* p<.001



표 5.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연령별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 $R^2$ ,  $\beta$  값)

연령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20대	자아수용(.40, .63 <sup>***</sup> )	자아수용(.20, .45 <sup>***</sup> )	환경지배력(.24, -.49 <sup>**</sup> )
30대	자아수용(.40, .64 <sup>***</sup> )	환경지배력(.26, .43 <sup>***</sup> )	자아수용(.06, -.32 <sup>**</sup> ) 개인적 성장(.11, .24 <sup>*</sup> )
40대	자아수용(.20, .45 <sup>***</sup> )	자아수용(.17, .41 <sup>***</sup> )	자아수용(.13, -.37 <sup>***</sup> )
50대	삶의 목적(.35, .36 <sup>**</sup> ) 자기수용(.42, .35 <sup>**</sup> )	자아수용(.39, .53 <sup>***</sup> ) 개인적 성장(.45, .26 <sup>**</sup> )	삶의 목적(.16, -.40 <sup>***</sup> )
60대 이상	자아수용(.63, .62 <sup>***</sup> ) 긍정적대인관계(.73, .37 <sup>*</sup> )	긍정적 대인관계(.45, .66 <sup>**</sup> )	삶의 목적(.39, -.63 <sup>**</sup> )

\* p&lt;.05, \*\* p&lt;.01, \*\*\* p&lt;.001

### 기혼여성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우선, 각 연령별로 2개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인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심리적 안녕감 요인에서는 긍정적 대인관계( $F_{(4, 452)}=2.96$ ,  $p=.019$ )와 개인적 성장( $F_{(4, 439)}=18.09$ ,  $p=.000$ )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20대는 60대에 비해 긍정적 대인관계정도가 높고,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연령층에 비해 개인적 성장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0대는 50, 60대에 비해, 그리고 40대는 60대에 비해 개인적 성장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변인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정서에서만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 $F_{(4, 454)}=5.60$ ,  $p=.000$ ). 사후 검증 결과, 심리적 안녕감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젊은 층인 20대는 다른 모든 연령층에 비해 긍정적 정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가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각 연령집단에 실시하였다(표 5). 표 5를 보면, 20~40대 기혼여성들의 경우 자아수용과 환경 지배력이 주관적 안녕감의 3요인 모두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흥미롭게도 50대 이상에서는 자아수용, 삶의 목적, 적, 긍정적 대인관계 및 개인적 성장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 표에 나타난 각각의 심리적 안녕감 요인의 설명분산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기혼여성들의 연령과는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자기수용 요인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의 노년기 기혼여성의 경우 자아수용성 요인 하나가 이들의 삶의 만족을 63%나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뿐만 아니라, 50대 이후의 기혼여성들에 있어서 심리적 안녕감이 설명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전체 변량은 42~73%(삶의 만족도), 45%(긍정적 정서), 16~39%(부정적 정서)로 나타나 40대 이하의 기혼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설명력이 크다는 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 이외의 인구통계적 변인들에 대해서도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학력이 매우 낮고 총수입이 적으며 직업이 없는 기혼여성 집단에서 자율성 요인이 긍정적 정서와는 부적 관계성을 보였고, 부정적 정서와는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집단에서는 독립적이고 자신만의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수록 긍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고 부정적 정서 경험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 논 의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이나 부의 증가가 실제로 각 구성원의 삶의 질을 증진시켰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1990년대 들어 국내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차경호, 1999).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의 하나로 삶의 질의 주관적인 영역이 과연 어떠한 구성개념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서구에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두 개의 양립적인 입장(심리적 안녕감 vs. 주관적 안녕감)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양상을 갖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심리학 이론들에서 제기된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심리적 안녕감이 과연 서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6개의 구성요소를 갖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통한 결과 6개 중 5개의 변인들은 분명하게 독립된 요인들로 도출되었으나 '개인적 성장'은 이제까지의 성장, 발전이라는 요인과 앞으로의 변화의지라는 두 가지의 요인으로 분리되는 모양을 보였다. 그러나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 개인적 성장을 두 개의 독립된 요인으로 보는 것 보다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가장 간결하고 적합한 모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이 하나의 상위 요인으로 수렴됨을 보고한 국내외의 결과(Ryff & Keyes, 1995; 차경호, 1999)와 일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양립적인 개념인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개념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과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 주관적 안녕감의 3요인 모두에 대해 자아수용과 환경지배력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자율성과 개인적 성장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수용과 환경 지배력이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밀접한 요인인 반면 자율성과 개인적 성장요인이 낮은 상관을 보인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차경

호, 1999).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몇 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전체 분산이 모두 합쳐서 15% 정도라는 기존의 결과들을 고려할 때(Diener, 1984), 자아수용이라는 단일 요인의 설명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기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반영해준다.

특히 개인적 성장은 다른 예측 요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약하지만 부정적 정서와 정적 관계를 보여 흥미를 끈다. 즉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나라 기혼 여성들의 경우 자기발전 및 성장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현 삶의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성일수록 우리 사회의 여성에 관한 고정관념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렇지 않은 기혼 여성들보다 부정적 정서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성장과 부정적 정서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한과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두 변인의 관계가 부적 상관을 보이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던 선행연구(Ryff, 1989)를 보아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개인적 성장요인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주성분 분석 결과 개인적 성장 변인은 자신의 성장·발전에 관한 성취감과 새로운 변화와 개선에 관한 동기 및 의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만일 두 요인을 별도로 취급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다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첫 번째 요인인 성취감은 예상대로 부정적 정서와 부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개선동기 및 의지 요인은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와 정적 관계를 보이는데는 개인적 성장변인의 두 번째 요인이 기여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의 흥미로운 결과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에 대해 서구의 결과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긍정적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나타난 점이다. 긍정적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 결과로(차경호, 1999)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아수용이나 환경 지배력 못지 않게 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대한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분석 결과, 젊은 층은 나이든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 모두에서 유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장 젊은 집단 20대는 심리적 안녕감내의 대인관계, 자기성장 요인과 주관적 안녕감내의 긍정적 정서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40대 여성들의 경우 자아수용과 환경 지배력이 주관적 안녕감 3요인 모두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50대 이상에서는 이와 함께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및 개인적 성장이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안정적이고 여가시간이 많은 50대 이후의 중년·노년 여성들의 경우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며, 가족 및 이웃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년기 이후에 40~50대 중년여성들이 사회적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험과 변화에 개방적일수록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명소, 성은현, 김혜원, 1999)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삶의 질 연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삶의 질 연구가 서구의 이론과 결과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혔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며 그들의 연령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혼여성에 대한 분석이 기혼남성에 대한 비교없이 이루어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을 부분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 참고문헌

- 김명소, 성은현, 김혜원(1999). 한국 기혼여성(아줌마)들의 성격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41-55.
- 조명한, 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48집*. 서울: 집문당.
- 차경호(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18(Dec.), 575-596.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mmons, R. A. & Diener, E.(1986).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sociability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50, 1211-1215.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4th ed.), Prentice-Hall, Inc.
- Hofstede, G.(1991).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 나은영 공역(1995). 서울: 학지사.
- Joreskog, K. G. & Sorbom, D.(1993). *New features in LISREL &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
- Kwan, V. S. Y., Bond, M. H. & Singelis, T. M.(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Oishi, S., Diener, E. F., Lucas, R. E., & Shu, E. M.(1999).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80-990.
- Medley, M. L.(1980), Life satisfaction across four stages of adults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1, 193-209.
- Myers, D. G. & Diener, E.(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 559.
- Triandis, H. C.(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부록 1.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Ryff, 1989, p. 1072에서 인용)

차 원	점 수	정 의
자아수용 (self-acceptance)	높은 점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자신에게 좋은 점들은 물론 나쁜 점들을 포함한 자신의 여러 측면들을 인지하고 수용한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낀다.
	낮은 점수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한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실망한다: 자신의 갖고 있는 나쁜 점에 대하여 괴로워한다: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긍정적 대인관계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높은 점수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신뢰로운 관계를 갖고 있다: 타인의 행복(welfare)에 관심이 있다: 강한 애정, 친밀감,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다: 대인관계란 주고 받는 것임을 이해한다.
	낮은 점수	타인과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타인에 대하여 따뜻하거나 개방적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고 좌절감을 느낀다: 타인과의 중요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타협하려하지 않는다.
자율성 (autonomy)	높은 점수	결단력이 있고 독립적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내적 동기에 의해 조절한다: 개인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한다.
	낮은 점수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대하여 걱정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타인의 판단에 의존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동조한다.
환경에 대한 지배력 (environmental mastery)	높은 점수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복잡한 외적인 활동 계획을 잘 조절한다: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낮은 점수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주위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주위에 있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한다: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삶의 목적 (purpose in life)	높은 점수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갖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 생활에 목표와 목적이 있다.
	낮은 점수	삶의 의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삶의 목표나 방향 감각이 거의 없다: 과거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삶에 의미를 부여할 신념이나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개인적 성장 (personal growth)	높은 점수	계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느낀다: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되어 감을 느낀다: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행동이 향상됨을 느낀다: 자기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간다.
	낮은 점수	개인적인 침체에 빠져있다고 느낀다: 시간에 따라 성장이나 발전되어 감을 느끼지 못한다: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낀다: 새로운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부록 2. 문항 내용

1.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현재의 내 활동반경(생활영역)을 넓힐 생각이 없다.
3. 살아 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4.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5.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6.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힘들다.
7.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8.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9.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10.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11. 나는 미래보다는 주로 현재만을 생각한다.
12.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같다.
13.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14.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15. 현재 나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방식을 시도할 생각이 없다.
16.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
17.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8. 가끔 매일 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19.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20.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많지 않다.
21.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이다.
22.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면, 내 자신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23.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24.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매우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25.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문제나 돈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
26. 많은 면에서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실망을 느낀다.
27.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28.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29.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30.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을 제 때에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31. 그 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32.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33.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다.
34. 현재의 생활방식을 바꿔야 할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35. 나는 인생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36. 친구와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나의 결정을 쉽게 바꾸는 편이다.
37.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38. 내 친구들은 믿을 수 있고, 그들도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9. 과거를 돌이켜 보면 좋았던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40. 생활을 만족스럽게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41.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은 오래 전에 버렸다.
42.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할 때면 내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
43.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내 자신을 평가하지, 남들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44. 내 가정과 생활방식을 내 맘에 들도록 꾸려 올 수 있었다.
45. 이제껏 살아 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Analyses on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and Relationship between PWB and Subjective Well-Being(SWB) among Korean Married Women**

**Myoung-So Kim · Hyewon Kim**

Hoseo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ried to identify 1) if the six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uggested in Western cultures were similar in Korean culture, 2) the relationship between PWB and SWB, 3)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PWB and SWB was different according to age. A sample of 471 married women completed a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showed that first, a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six-factor model was the best-fitting model in explaining PWB. Second, although both Self Acceptance and Environmental Mastery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all three factors of SWB as in the previous studies,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the factor that was not important in the studies in Western culture, was also important in explaining SWB. Third, along with the increase of age, participants' PWB as well as SWB decreased. Also, Self Acceptance of PWB was important factor for younger groups' SWB whereas Self Acceptance as well as Purpose in Life and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were important factors for older groups' SWB. Finally, results revealed in the present study were compared with previous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